

효고현 긴급사태선언 연장

다시 한번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효고현에 발령된 긴급 사태 선언이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우리 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하루 300명을 넘는 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일주일간 하루 평균 약 4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 수가 1,500여 명에 이르는 등 의료 체계에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일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현민 여러분 개개인이 '감염되지 않는다, 감염시키지 않는다'라는 강한 책임감으로 본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1 . 외출 자제

- 불요불급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특히 오사카 등 효고현 외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 주류·노래방 설비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의 가게와 단축 영업 요청 시간 외에 영업하는 음식점 등에는 **절대로 출입하지 마십시오.**
- 음식점 등을 이용하실 때 주류는 **절대로 반입하지 마십시오.**

2 . 젊은 층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동 자제

-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주류를, **가게 앞이나 길거리, 공원 등에서 마시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십시오.**
- 친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자리를 벌이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 가정에서는 '바이러스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바이러스를 집안에서 확산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를 집 밖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 동아리 활동 등을 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직장에서는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 화상 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출퇴근 노동자 수 70% 줄이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